



독일 알버트 아인슈타인 고교생들이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서 발우공양을 하며 한국불교를 체험하고 있다.

# “동·서양 모두 한나무 한뿌리”

### 獨고교, 종교 체험 일환, 한마음선원 방문

### 행선, 다도시연후 스님과 대화 시간 가져

### “불교 통해 영성 체험한 살아있는 순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독일 청소년들이 한국 불교를 체험하는 정규 수업을 가져 화제다.

4월 11일 알버트 아인슈타인 김나지움(Albert-Einstein Gymnasium)의 9학년 남녀 30명이 타종교 체험수업의 일환으

로 독일 중부 지역 뒤셀도르프(Duesseldorf) 인근 카르스트(Kaars)에 소재한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을 방문한 것. 화창한 봄날 아침 9시경, 스몰린스키(Smolinski) 종교 선생님의 안내로 17세 가량의 눈 푸른 계곡만 후에들이 생애

처음으로 일주문을 들어섰다. 지원장 혜진 스님의 설명으로 ‘신발 부처님’을 정성스럽게 놓아 만물과 하나되는 ‘행선(行禪)’의 체험을 하게 하자, 30명 이상의 신발들이 놀라게도 가지런히 놓여졌다. 다도 체험을 위해 마련된 법당에 연꽃 등이 밝혀지고 동그런 원형으로 좌복을 놓고 좌선할 때의 앉는 법, 호흡법, 집중법 등을 몸과 마음으로 편안하게 익혀갔다. 청소년들과 불교와의 만남은 은은히 울리는 타종소리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다. 1시간정도 묵언속에서 다도 시연이

이뤄진 후 자유로운 질문시간이 주어졌다. 차맛에 대해 선연한 느낌을 조심스럽게 나누는 후, 이것 저것 알고 싶은 질문들을 활발하게 내놓는다.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나 세례를 받아 성장하면서도 주말에는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유분방한 독일의 심대틀,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신타>를 읽었다는 아이들은 스님도 그 책을 읽었는지 궁금해 했다.

“불교에서는 신(Gott)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요?”

“깨달음은 과연 누가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는지요?”

“영혼과 정신은 무엇인지요?”

영혼의 실체를 묻는 아이들의 잇단 질문에 혜진 스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유식학(唯識學)의 이론에 따라 설명한 후 되물었다. “서양인인 여러분과 동양인 스님, 즉 우리들의 실체는 서로 다른가요?” 라고 스님이 묻자, 학생들의 “우리들은 한나무의 한뿌리입니다.”라는 한목소리가 스님을 놀라게 한다. 이어서 과학적으로 내면을 더욱 탐구하여 진정한 자기가 누구인지 밝혀가자는 스님 말씀에 모두 활짝 미소를 짓는다.

2시간의 짧은 불교체험 행사가 끝나고, 토론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종교담당 선생님은 “이론적인 불교를 통해 영성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한 살아있는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혜진 스님은 끝으로 이 시대 지구촌에서, 무력과 반목의 전쟁속에서 우리의 육근(六根)을 어떻게 들고내어 정토를 이뤄 갈 수 있는지 법문하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귀한 불연(佛緣)이 맺어졌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낙도어린이 청소년에 포교장학금

### 허공장회·구인회, 총5백만원 전달

낙도 어린이 청소년 30명에게 포교장학금이 전달됐다.

낙도포교단체인 허공장회(지도법사 지명스님, 법주사 주지)와 구인회(회장 삼지스님)는 8일 안면도 안면암 큰법당에서 황은지 학생 등 초등생 15명, 유다룡 학생 등 중학생 10명, 김정호 학생 등 고교생 5명에게 총 500만원의 포교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은 허공장회 회원 100여명을 비롯 각 학교 교장 교감 및 인솔교사 10여명, 수혜학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 반야심경, 안면암 원주 설악스님 인사말, 낙도장학회 김부량회 회장 장학금 전달, 사후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허공장회는 2부

순서로 다과회를 마련 낙도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서 장학금 수혜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성장한 후 지역사회에 반드시 회향하는 삶을 살겠다”고 발원했다.

낙도포교 장학금은 낙도포교 전진기지로 안면암이 건립된 후 지난해부터 허공장회 김부량회 보살의 1억원 기탁, 구인회 스님들의 동참으로 매년 장학금 수혜자와 금액이 확대되고 있다.

허공장회 지도법사 지명스님은 “낙도에 불서, 의약품, 재활용품, 장학금 전달을 통해 불교포교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김동 영화사, 지역문화포교 거점

### 무로영화, 강연회 등 행사 다양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사로 오세요.” 경기 김포 영화사(주지 지관)가 이 지역 문화포교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화사는 5월 4일부터 한 달에 두 번, 무료 영화 감상회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봄부터 가을까지, 저녁 7-9시 영화사를 찾으면 볼 수 있는 영화는 불교를 소재나 주제로 삼은 것들. 첫 테이프는 달라이 라마의 일대기를 담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쿤둔’이 꼽을 예정이다. 무료 불교영화 상영을 기념해 ‘김포시민을 위한 연가 스님(베스트셀러 <만행>의 저자) 강연회’도 이날 오후 1시부터 열린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영화사 신도 30여 명으로 구성된 남녀청소년합창단 발족식을 가졌고, 소규모지만 실내악단도 곧 결성된다.

주지 지관 스님은 “한강과 일산 신도시가 내려 보이는 영화사는 풍광이 좋아 주말이면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 편”이라며 “지방에서는 아직도 불교를 어렵거나 딱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불교와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김제 성모암, 진묵대사 다례제

### “효정신 본받고, 보살행 실천”

김제 성모암(주지 종위)은 9일 법당에서 진묵대사 탄생 441주년을 기념, 진묵대사 어머니 다례제를 봉행했다. 전주 광명포교원 주지 종해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성모암 회주 영월 스님은 “진묵대사님의 효 정신을 본받고 실천하며 보살행을 실천하라”고 법어를 했다. 이 행사에는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기석 전북지사장



##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세보살

### 한성포교원 임현숙총무, 장정의 도감, 손금자 금강

문득 조용히 눈감아 봅니다. 어떤 시절, 아주머니들 한 가운데는 쌀 씻을 때 쓰는 큰 양동이와 있고, 찬밥과 된장국 몇 가지 종류의 나물들이 각양각색의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양푼이에 밥과 나물 고추장을 넣고 썩썩 비비기 시작합니다. 다 비빈 다음 아주머니를 머리를 맞대며 연신 손가락질을 합니다. 양푼이는 금새 바닥을 보이고 아주머니들 얼굴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찌그러진 주전자에 막걸리를 받아 옵니다. 막걸리 한 사발 죽 들이키면 아주머니들의 얼굴색 답 옆에 핀 다리아라 그것과 비슷합니다.

사람 있습니다. 총무 임현숙(55, 진불성) 도감 장정의(55, 원만행) 금강 손금자(54, 연화심). 총무는 다른 절집 일과 비슷합니다. 도감은 장, 반찬 등 주로 후원에서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금강은 사업부라고 해서 수익사업에 노력하고 있고.

세부 95년 포교원 개원할 때는 불교에 대해 문외한이었습니다. 하루는 주지스님이 염주를 돌려보라고 했더니 옆 사람에게 ‘염주를 돌렸다’는 전설이 내려올 정도랍니다. 하지만 절 일 열심히 하다보니 이제는 포교원의 세 기둥이 되었습니다.

동네천구사이인 세 친구 포교원과 주지스

### 푸근한 이미지 절·집안일 구분없이 열심히

### 포교원 개원때 불교 문외한 이젠 ‘세 기둥’



총무 임현숙 보살

후원담당 장정의 보살

사업담당 손금자 보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나구요? 그것은 서울 면목동 한성포교원(주지 법봉)에서 받은 느낌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주지스님,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이웃집 아주머니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세가 상 짓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것 같습니다. 주지스님이 그렇게 하니 신도들도 절일 집안일 구분 없이 열심히 한답니다.

그 신도님들 중 특히 도드라져 보이는 세

님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니 청산유수입니다. 우리 스님은 어떻게 저렇게, 우리 포교원은 어떻게 저렇게, 자랑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포교원에 다니다보니 세레까지 받은 납품이 자신보다 더 열심히 불교공부 한다고 입이 침이 마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구요.

한성 포교원의 세보살, 참 보기드문 향내 나는 분들입니다. 남동우 기자



### 추천의 말

### 법봉스님 한성포교원 주지



포교원은 산중 사찰과 달리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각 소임을 맡은 불자의 역할이 중요하합니다. 법당에서 기도하는 것만 수행이 아닌

### 신도들이 있어 큰사찰 앎부러워

니다. 절 살림 하는 것도 집안일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절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내 포교도 원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포교원은 일반 가정집에 비 오면 물세기도 하지만 이런 신도들이 있어 어느 큰 사찰 부럽지 않습니다.

# 건강한 관절, 활기찬 인생!!

### 서울대 병원에서 효능 A등급 제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월 23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개업의사 450여명이 참석한 건강영양치료 연수강좌에서 “글루코사민 프러스 삭카트리지”는 효능이 우수한 제품(A등급)으로 선정, 처방 추천되었습니다.

### 서울대병원 추천기념 특별판매

**퇴행성관절염**  
**글루코사민 프러스 삭카트리지®**  
GLUCOSAMIN Plus Shark Cartilage  
신체의 연골성분이 부족해지면 관절대사가 약해집니다. 건강한 관절을 위해 관절에 좋은 영양성분이 필요합니다. 글루코사민 프러스 삭카트리지는 글루코사민과 상어연골(콘드로이틴 함유) 활성 비타민을 주성분으로 제조된 건강 보조 식품입니다.



미국수입 원제품

### 글루코사민의 효능 보도

- 조선일보 2003. 3.25
- 동아일보 2003. 3.25
- KBS 생노병사의 비밀 2003. 2. 4
- MBN 메디칼센터 2003. 3. 4
- 한국 경제 2003. 3. 20
- 스포츠서울 2003. 3. 6
- 식품음료신문 2001. 3. 5
- 연합뉴스 2000. 3.15

### 전문사이트

- 대한 약사회, 건강상식
- 약약사 신문, 건강포럼
- 서울대 가정 의학과
- 고려대 구로병원

**\* 글루코사민 셋트판매 (4개월분)**  
글루코사민 삭카트리지 (180정) 2병  
오메가 - 3 피쉬오일 (180정) 1병  
**특별판매가 : 320,000 → 250,000원**

오메가-3는 소염진통효과가 있어 미국 관절염 협회에서 환자들에게 복용을 권장합니다. 오메가-3에는 1정당(1,000mg).EPA180mg.,DHA120mg., DPA20mg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 성분 및 함량 1정당  
글루코사민 500mg, 상어연골(콘드로이틴 함유) 400mg, 구연산칼슘 150mg, 비타민 C75mg, 비타민 B, 비타민 D, 아연, 망간  
1일 권장량(54-90kg) 1일 3정 : 글루코사민 1500mg, 콘드로이틴 1200mg

소재는 밀러. 영업사원 모집중

가자 건강 www.BB21.com

(02) 5454-010

일금즉시 배송 전국 1~2일

### 미국 대륙을 강타한 화제의 책!!

### 「관절염 치료된다」

### The Arthritis Cure



### 베스트셀러 1위

### 뉴욕타임지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 기적, 9단계 관절염 치료법을 소개한 책

한국어 번역판 “글루코사민과 관절염”  
집사재 간 246쪽 8,000원

관절염 더 이상 난치병이 아니다. 이 책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나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했다. 몇번이나 수술을 받아 보았지만 별효과가 없었다. 남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내 병을 못 고치는 상황이 처한 것이다. 1년간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던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마침내 발견했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에 관한 임상결과가 눈에 띄었다. 2주 동안 섭취 후 훨씬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검사해보니 손상되었던 연골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는 더욱 연구를 한 후 환자들에게 처방했다. 수백명의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거나 증세가 크게 완화되었다.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 저자 후원에서 -

문의 02-969-8080 (등기우송)